

농진청, 원예특작 신기술보급사업 추진

올해 34개 사업, 226억여원 규모로 추진... 이상기상 대응 초점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올해 원예특작 신기술보급사업 34건을 전국 289개 지역에서 226억여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 가운데 4개 사업을 이상기상 대응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새롭게 추진되는 보급사업 중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 생산 체계 구축 사업은 평창, 정선 등 6개 지역에서 12억 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미세 살수, 저온성 필름 같은 고온 경감 기술과 토양 소독제, 미생물 퇴비 등 토양 환경 개선 기술을 융합해 준고랭지 지역에서 여름배추 안정 생산 기틀을 마련한다.

사과꽃 피는 시기에 이상저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농업용 온풍기와



통로(덕트)를 노지 과수원에 설치하는 통로형 온풍 공급 기술 보급을 추진한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인위적으로 열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존보다 꽃(중심 꽃) 피해율을 약 30% 줄이고 열매달림 비율(차과율)은 약 38% 높일 수 있다. 인제, 영동 등 6개 지역에

서 6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

저온성 작물인 인삼을 고온기에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이중구조 온실(하우스)도 보급한다. 기존과 다르게 천장을 60cm가량 개방하고 위쪽에 흰색 직조 필름을 추가 설치해 최고기온을 3도(℃) 정도 낮춰 생산량을 30~50% 늘릴 수 있다. 파주, 홍천 등 9개 지역에서 3억 6,000만 원 규모로 추진한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해충 교미 교란 방출기를 감공연구센터에서 새로 개발해 이천, 영월 등 7개 지역에 1억 4,000만 원 규모로 보급한다. 솜, 고무 등으로 만든 기존 방출기가 자외선, 비 등 외부 환경에 노출됐을 때 페로몬이 변성해 안정적으로 해충

을 유인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재질을 실리콘으로 개선하고 자외선 차단 안료를 넣어 페로몬 변성 없이 해충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이러한 기술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1월 15일, 17~18일, 23일 총 3회에 걸쳐 본원에서 사업 추진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술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장선화 과장은 "이상기상, 인력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해 다양한 문제점이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신속하게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14일 올해 4급 승진자 18명에 대한 임용장 교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역과 함께 나누는 '승진 기쁨'

농협 전북본부, 4급 승진자 18명 행복꾸러미 지역사회 전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14일 올해 4급 승진자 18명에 대한 임용장 교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 승진자 18명은 승진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누리고자, 임용장 교부식을 마친 뒤 '영게어려 (Young Career)'에 대한 사회 공헌활동을 진행하였다. 영게어려란 고령이나 장애·질병 때문에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을 말한다.

승진자를 포함한 전북본부 임직원들은 떡국떡, 한우사골곰탕 등 식료품 17종이 담긴 NH행복

(福)꾸러미를 제작하였고, 세이브더칠드런(전북이동권리센터장 안소라)과 협업하여 도내 54가정에 꾸러미와 승진자들의 좋은 기운을 담은 편지를 같이 전달하였다.

한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이라는 목표로 매월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이날 김성훈 본부장은 "전북도민과 고객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호 기자



하림, 정읍시 '성실납세 유공자 선정' 법인부문 표창 수상

종합식품회사 (주)하림(정호석 대표이사) 정읍공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정읍시청에서 열린 2024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에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읍시장으로부터 법인부문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 법인에게는 표창과 지방세 세무조치를 3년간 유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이날 이학수 정읍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수상자와 법인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납부된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하림 정읍공장은 지역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성금 기탁,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 농촌지역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사회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 본격 착수

2027년까지 한국전력공사 보조 사업자로 총사업비 510억원 규모 전력공급 인프라 확충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4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착수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전력공사를 보조 사업자로 하여 총사업비 510억 원(국비 보조 255억원) 규모의 전력공급 인프라(전력개폐소 등)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에 전력 공급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전력 사용이 큰 이



새만금 국가신산업단지

차전지 기업들의 입주 시기에 맞춰 충분한 양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착수 회의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일정계획과 더불어 2025년도 국비 예산(65억 원)을 효율적으로 조기 집행하기 위한 토지매입, 인허가, 설계, 공사계약 등 연내 공정관리 계획을 논의했다.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전력 등 공급 처리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충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민호 기자

LX공사, 지적재조사 참여 민간대행자 모집

614개 사업지구 선정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사장 어명소)는 국토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참여할 민간대행자를 모집한다.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 국토의 15%인 554만 필지의 지적불합치율을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책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 규모는 전국단위 시·군·구 223개 지자체의 614개 사

업지구, 19만 6천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436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국토교통부의 바론평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1월 31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결과는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바론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X공사는 이번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사에 평가에서 초급기술자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고용 가점을 추가하였다.

또한 업무 공정 비율에 따른 민간대행자의 사업비 배분을 높여 수익을 높

이는 등 민간대행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과 제도를 완화하여 민간과 상생·협력을 통해 사업 가속화를 이끌 계획이다.

LX공사 이주하 부사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를 민간대행사와 협력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LX공사는 민·관·공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2024년까지 사업 대상 554만 필지 중 190만 필지인 34.3%를 완료하였다. /김옥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인태용)은 9일 여성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2025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여성창업, 여성기업 판로, 여성기업 인력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여성기업 전용 사업에 104.9억원이 지원된다.

2025년 '여성기업육성사업' 주요 내용은 여성창업에는 전국 18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예비)창업자에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창업경진대회' 신청자격을 확대(창업 3년 미만 → 7년 미만)하고 입상자에게는 사업화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진출 희망 기업에는 수출 희망 국가의 실무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는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판로지원은 여성기업의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여성기업 제품의 홈쇼핑, 온라인 플랫폼 등에 입점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생활용품 전시회 등

에 참가 시 부스비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하도록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의무 구매 제도도 지속 실시한다.

인력지원은 '여성기업 맞춤형 인력매칭 플랫폼'을 통해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해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또한 경영 애로를 겪는 여성기업이 선배 여성CEO 등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태용 청장은 "저출산·고령화 상황 속에서 전북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여성기업육성사업이 여성기업 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어 사업 신청에 적극 지원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예비)창업자 및 여성기업은 중소기업 누리집(www.mss.go.kr), 여성기업종합지원포털 누리집(www.wbiz.or.kr)에서 세부 일정 및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